육아정책Brief

통권 제 14호 | 발행인:이영 | 발행일:2013년 06월 10일 | 발행처:육아정책연구소

06 June

육아 지출 현황 어떠한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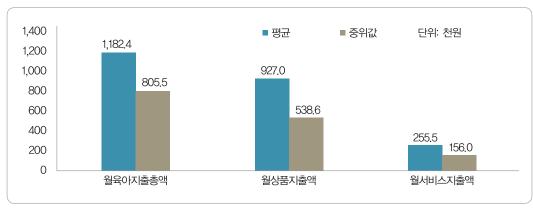
Ⅰ. 배경

영유아가 있는 도시가구의 육아 고유 품목 소비 지출이 어떠한지 살펴봄.

- 양육수당과 누리과정 지원의 확대로 2013년 현재, 유아교육·보육의 국비·지방비는 약 12조 규모임.¹⁾ 이는 우리나라 GDP* 대비 약 0.94%로 OECD 예산 권고안인 GDP 대비 ECEC 예산 1%에 근접함.
-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기관 서비스 이용 및 현금 지원을 확대한 현 시점,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육아 고유 품목 지출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함.

Ⅱ. 육이품목 지출 현황

영유아자녀를 위한 고유 '상품' 구입비가 '서비스' 구입비 보다 3배 이상 높음. ● 서울에 거주하는 450가구가 영유아자녀를 위한 고유 '상품'과 '서비스'를 구입, 지출하는데 쓴 비용을 조사한 결과, 중위값 기준 상품에 지출하는 월 비용이 서비스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남³(그림 1 참조). **



주: 표집된 도시가구의 소득 및 비용지출의 편차가 커, 중위값을 대표값으로 추가 제시함. 자료: 최윤경·유해미·김성숙·송신영(2012), 영유아 양육물가 현황과 지수화 방안, 육아정책연구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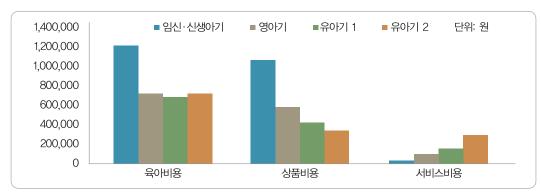
[그림 1] 영유아 고유의 육아품목 지출 비교(상품 대 서비스)

- * GDP 명목 1.272,495.5십억원임(ECOS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, 2012년 기준).
- ** 본 육아생계비 조사는 영유아부모가 체감하는 육아물가지수 산출을 위해 필요한 육아 대표품목(상품, 서비스)의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로, 영유아만을 양육하는 서울 거주 450가구를 유의표집함. 6월 한 달 육아 고유 지출을 회상 응답한 결과임.



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상품 구입비는 줄고 서비스 구입비는 증가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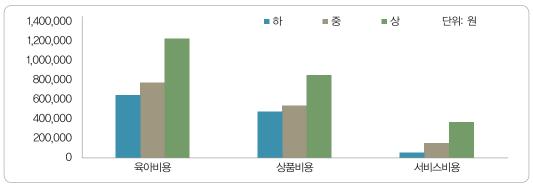
- ▶ 육이품목 조사로 합산된 영유아 자녀 월 평균 육아지출 총액은 1,182,400원(중위값 805,500원) 으로, 중위값으로 산출하는 경우 조사대상 가정의 월 가구소득(3,500,000원)의 23,0%, 월 소비 지출(1,920,000원)의 41,9%로 나타남.
- ▶ 영유아자녀 양육을 위해 구입, 지출하는 육아품목바스켓 조사 결과, 상품 127개, 서비스 33 개로 총 160개의 육아고유 품목이 추출됨.³
- ▶ 가계지출비중 상위의 육이필수재는 분유, 기저귀, 카시트, 유모차, 아기띠, 매트, 돌/백일/생일 위탁비용, 영유아교재교구/책, 유치원비, 어린이집 보육료, 영유아 민간보험으로 11개 품목이 조사됨.³
 - 영유아 '식품'과 '의류' 와 같은 지속적인 소비재 지출이 차지하는 부담과 체감도 큼.
 - 임신과 출산으로 구입해야할 상품과 서비스 품목(예: 산후조리원)이 많은 임신·출산·신생아기의 지출 부담이 큼(그림 2 참조).
 - 유아기로 접어들수록 교육·보육비와 같은 서비스 비용의 부담이 늘어남(그림 2 참조).



주: 임신출산신생아기(임신후기~12개월), 영아기(13~30개월), 유아기 1(31~48개월), 유아기 2(49~72개월) 자료: 최윤경·유해미·김성숙·송신영(2012), 영유아 양육물가현황과 지수화 방안, 육아정책연구소,

[그림 2] 발달시기별 영유아 고유의 육아품목 지출 비용(중위값)

- 소득계층별로 양육비 지출규모와 상품 및 서비스 내역이 달라. 정부지원의 체감도가 다름.
 - ▶ 소득 하층과 중층의 양육비 지출 중위값에 큰 차이가 없어, 소득 하층의 영유아 양육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. 특히 영유아자녀 '상품'구입의 부담이 저소득층일수록 큼을 알 수 있음(그림 3 참조)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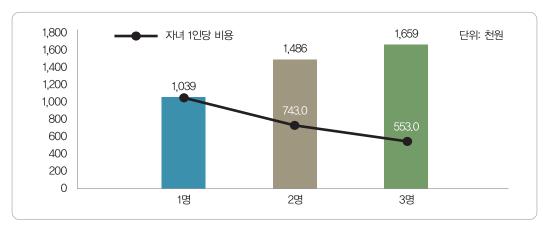
주: 하(120~230만 원), 중(240~570만 원), 상(580만 원 이상)

자료: 최윤경·유해미·김성숙·송신영(2012). 영유아 양육물가현황과 지수화 방안. 육이정책연구소.

[그림 3] 소득수준별 영유아 고유의 육아품목 지출 비용(중위값)

Ⅲ. 자녀수와 모 취업과의 관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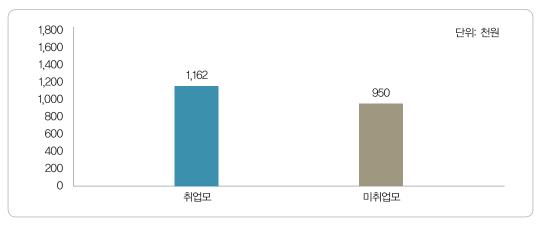
● 영유아가 많을수록 가구당 양육비와 보육료·교육비 지출 총액은 늘어나나, 자녀 1인당 지출은 줄어듬²⁾(그림 4 참조). ***



자료: 서문희·최윤경·신윤정·이세원(2010), 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, 육아정책연구소.

[그림 4] 영유아 자녀수별 양육비 지출 비교

- ▶ 이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 상품과 서비스 이용 지출이 많아 양육비 부담이 크다는 것을 나타냄.³
- ▶ 다자녀 가구의 자녀 증가에 따른 양육비 규모의 경제와 영유아 1인당 인적투자 비용이 줄어 드는 경제적 취약성을 동시에 드러냄. 영유아 가구는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은 낮아지고 지출이 많아지는 경향을 가짐.^{2,4}
- 취업모의 자녀 양육비와 보육료·교육비 지출이 미취업모에 비해 큼(그림 5 참조)²¹
 - ▶ 2012년 서울 영유아가 있는 가구 육아품목조사에 의하면, 소비지출 대비 비중(중위값)이 미취업모(43.0%). 취업모(38.5%)로 미취업모에서 다소 큼.³



자료: 서문희·최윤경·신윤정·이세원(2010). 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. 육아정책연구소.

[그림 5] 모취업 여부별 양육비 지출 비교

^{*** 2010} 양육비 가계부 조시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5대 도시 거주 243 가구를 유의표집한 결과로, 특정 한 달(6월)을 조사기간으로 한 데서 오는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있음.

Ⅳ. 정책 제언

저소득층 육아필수재 지원과 임신·출산·신생아기 지원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.

- 영유아기 육아지원정책의 설계는 서비스 비용 지원에 국한되지 않아야 함.
 - ▶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상품 품목이 다양하고 가계 지출비중이 크므로, 이 점을 고려할 필요 가 있음.
 - ▶ 특히 임신·출산·신생아기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품목에 대한 지출 부담이 크므로, 영 유아기 서비스 질 제고와 임신·출산·신생아기의 양육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보강이 요구됨.
 - ▶ 저소득층의 육아 부담이 크므로, 저소득층 위주로 육아필수재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. 분유, 우유, 기저귀, 카시트와 같은 품목을 육아필수재로 분류, 지원품목으로의 편입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.
- 영유아 양육에 요구되는 상품과 서비스 품목이 다양화, 고급화되는 추세로, 적정수준의 육아 필수재의 효율적인 구매와 이용으로 가계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.
 - ▶ 구체적으로 육아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육아공동체의 참여와 상호교류를 통해 육아 내구재의 이용을 개별 가구의 구입에 국한하지 않으며, 렌털이나 물려쓰고 바꿔쓰기 등의 공동체적 노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.

최윤경 부연구위원 ykchoi@kicce.re.kr

¹⁾ 김현숙(2013). 새 정부의 보육 공약과 추진계획, 2013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.

²⁾ 서문희·최윤경·신윤정·이세원(2010). 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. 육이정책연구소.

³⁾ 최윤경·유해미·김성숙·송신영(2012). 영유아 양육 물가 현황과 지수화 방안, 육아정책연구소.

⁴⁾ 최윤경·이윤진·유해미·권미경(2013), 가족변화관련 육아정책의 향후 과제, 경제인문사회연구회·육아정책연구소,